

##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 변화 연구 -호스피스 간호 학습 전·후 비교-

백 설 향 · 이 미 애 · 김 인 흥\*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죽음은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Adams, 1985). 모든 생명체가 영구히 살 수 없듯이 사람의 죽음도 불가피하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런 생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Kim & Park, 1984).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생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보다는 생의 영속만을 염원하며,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치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이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Kübler Ross E, 1969). 그러나 이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체험하고 각 사람에게 닥칠 죽음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죽음'이요, 또한 '맞보게 될 죽음'이다(Michael, 1979). 이 죽음 만큼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러한 죽음이나 임종 현상은 객관적인 도구로 정확히 측정될 수 없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Park & Choi, 1996). 이와같이 죽음에 대한 관념은 각자가 다르게 갖고 있기는 하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지

니는 모든 불안의 궁극적인 요인이 된다(Jung, 1980). 그러므로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편안하고 경건한 태도로 생을 끝마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현대의 놀라운 의학발전으로 증가된 평균 수명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며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들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는 현대의학에 의해 억지로 생명이 연장되는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환자들이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Kübler Ross E, 1970). 최근에는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보다는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고 중요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같이 임종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도록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Lewandowski & Jones, 1988),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임종환자들을 돌보는데 있어 먼저 자신의 죽음의식과 그에 대처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직시한 사람이야말로 임종환자 간호에 있어 가장 보배로운 자격을 갖춘 것이 된다(Kübler Ross E, 1970). 그러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 ihk2624@dongguk.ac.kr)

므로 호스피스 간호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죽음의식이 긍정적이고 확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수준의 거의 모든 교과과목으로써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성인기 후기 개인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Jo, 1990). 이러한 일반인 에 대한 죽음 교육 뿐 아니라 의료인의 죽음 교육은 의학윤리의 원점이며 호스피스에 의한 임종환자의 말기간호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간호학에서는 각각의 전문 학과목에서 말기환자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으며 단지 몇몇의 대학에서만 호스피스 간호 혹은 임종간호를 개설하여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1974년 Yoo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Choi(1975)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사하였고 Yoon(1985)은 죽음에 대한 불안울 조사 연구하는 등 죽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의료인, 간호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반응을 태도나 불안 혹은 공포등으로 다양하게 측정하여 왔고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이해 및 죽음의 의미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인 죽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 Choi(1996)의 연구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한 Park(1991), Park(2001)의 연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죽음의식을 알아보고, '호스피스 간호' 강좌 이수에 따른 죽음의식과의 관련성을 파악, 비교 분석 함으로서 호스피스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히고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에 대한 교육에 반영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아 미래의 호스피스 간호를 담당할 간호 대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호스피스 간호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을 알아본다.
- 2) 간호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간호' 강좌 실시 전, 후 죽음의식을 비교한다.
- 3)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의 정도를 알아본다.

## 3. 용어의 정의

### 1) 죽음의식(Death Orientation)

죽음의식은 임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의미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다측면적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Thorson & Powell(198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죽음의식을 측정하였다.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정도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의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2) 호스피스 간호(Hospice care) 강좌

본 강좌의 내용은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의 말기에 있는 환자들을 죽을 때까지 가능한 한 편안하고 질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간호를 제공하고자,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개요, 호스피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간호와 가족의 사별 간호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Dongguk University, 2001).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K시 D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후 간호학과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좌 전·후를 비교하는 원시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로서 단일군 전후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조사 시점 이전에 어떤 호스피스 및 죽음과 관련된 강좌를 이수한 적이 없는 '호스피스 간호'를 수강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죽음의식(Death Orientation)

죽음의식에 대한 도구는 Templer(1970) & Boyer(1964)가 개발한 죽음의식에 대한 도구를 Thorson & Powell(1988)이 수정해서 죽음의식 도구를 만들었으며 이것을 Park(1991)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총 25문항이고, 7개 요인으로 요인1은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다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사후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사후의 삶, 사후에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것, 고립되는 것, 모든 것을 잃는 것 등이고 요인2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요소 들이다. 요인3은 신체에 대한 관심과 부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요인4는 의존적이 되고, 남에게 부담이 되는 것, 쓸모없게 되며, 오래동안 천천히 죽는 것, 자신에게 조절 능력이 없는 것 등이다. 요인5는 내세에 대한 것이고, 요인 6은 관에 대한 불안, 요인7은 죽은 후에 주의 깊은 지시를 남겨놓음에 대한 것이다. 역문항이 모두 9개로 4, 10, 11, 13, 16, 17, 21, 23, 25번이며, 죽음의식 정도는 4점 척도로서 평균점수가 3.00 이상은 죽음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2.00에서 2.99까지는 중간수준으로, 1.99이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Thorson & Powell이 해석하였다. Thorson & Powell이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2$  이었고 Park(1991)은 Cronbach's  $\alpha = 0.8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81$ 이었다.

## 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01년 3월 2일 부터 2001년 6월 21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전조사는 준비된 설문지를 '호스피스 간호' 강좌를 이수하기 전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끝난 후 사전조사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시간적 간격을 4개월이었다.

## 5. '호스피스 간호 강좌' 교육

'호스피스 간호 강좌'는 2시간 씩 16주 동안 호스피스 간호 과정을 6개월 간 이수한 연구자의 강의 및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유자 외 3인의 '호스피스와 죽음'(1997)을 교재로 강의하였고,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두 번의 토론시간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종교인을 초청하여 종교와 죽음에 관한 특강을 두 번에 걸쳐 3시간 실시하였으며 Vedio를 통해 실제 암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간호 장면을 네 번에 걸쳐 4시간 동안 시청하였다.

##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PC+7.0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결과로 얻은 raw-data의 모집단 분포가 정상 분포(normality)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Kolmogorove Smirnov(Goodness of Fi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강좌 전·후 죽음의식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 차이는 paired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연령은 21세로, 21세(68.1%), 20세(19.1%) 23세(6.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였으며, 종교는 불교(36.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무교(34.0%), 기독교(19.1%), 천주교(10.6%)순이었다. 생활정도는 중류층이 42명(89.4%)로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 접한 죽음의 여부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51.1%, 없는 학생이 48.9%를 차지하였다 <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7

variables	N	%	M±SD
age(year)	19	1	2.1
	20	9	19.1
	21	32	68.1
	22	2	4.3
	23	3	6.4
gender	male	1	2.1
	female	46	97.9
religion	protestant	9	19.1
	catholic	5	10.6
	buddhism	17	36.2
	none	16	34.0
economic status	above average	1	2.1
	average	42	89.4
	below average	4	8.5
the experience of a death in recently (from 6 months ago to now)	yes	24	51.1
	no	23	48.9

2.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은 4점 척도의 기준에서 평균점수는 2.80이었고, 문항별 평균점수에서 죽음의식이 3.0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반응한 문항은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다'로 평균점수는 3.23, 3.17, 3.13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죽음의식이 중간 수준인

평균점수 2.00에서 2.99 사이의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문항은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 "관을 보면 불안하다"등으로 평균점수는 2.38, 2.53, 2.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 이하의 낮은 점수의 문항은 없었다(Table 2).

3. 간호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후에 따른 죽음의식의 변화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후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 비교는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호스피스 간호' 강좌 후의 죽음의식 평균점수는 2.55로 강좌 전의 죽음의식 평균점수 2.80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문항별 죽음의식에 대한 총 25 문항에서 '호스피스 간호' 강좌 실시 전·후에 죽음의식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문항은 14 문항으로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다'(p<0.01)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p<0.001)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p<0.01) '관을 보면 불안하다'(p<0.01) '죽은 후에 내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다'(p<0.001) '죽으면 꿈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싫다'(p<0.01)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p<0.01)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 싫다'(p<0.01) '죽은 후에 아무 것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p<0.001) '죽은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p<0.05) '죽은 후에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p<0.05) '죽음 후에 올 많은 것을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p<0.01)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p<0.05) '죽음으로써 모든 것과 완전히 격리된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p<0.05)의 문항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의식 정도와의 차이

<Table 2> The difference of death orientation between pre and post on lecture of hospice care

items	pretest	posttest	t
	M±SD	M±SD	
1. I fear dying a painful death	3.13±0.45	2.66±0.52	4.66***
2. Not knowing what the next world is like trouble me.	2.53±0.78	1.96±0.42	4.48***
3. The idea of never thinking again after I die frightens me.	2.70±0.75	2.30±0.72	2.67**
4. I am not at all anxious about what happens to the body after burial	2.74±0.64	2.85±0.63	-0.81
5. Coffins make me anxious.	2.57±0.74	2.19±0.58	2.79**
6. I hate to think about losing control over my affairs after I am gone.	2.74±0.71	2.26±0.61	3.60**
7. Being totally immobile after death bother me.	2.66±0.73	2.26±0.53	3.07**
8. I dread to think about having an operation.	2.77±0.60	2.53±0.65	1.81
9. The subject of life after death troubles me greatly.	2.38±0.82	1.98±0.39	3.05**
10. I am not afraid of a long, slow dying.	3.17±0.43	3.13±0.68	0.36
11. I do not mind the idea of being shut into a coffin when I die.	2.72±0.68	2.53±0.55	1.50
12. I hate the idea that I will be helpless after I die.	2.77±0.63	2.38±0.57	3.08**
13. I am not at all concerned over whether or not there is an afterlife	2.94±0.53	2.87±0.58	0.56
14. Never feeling anything again after I die upsets me.	2.79±0.72	2.28±0.62	3.70***
15. The pain involved in dying frightens me.	2.96±0.46	2.81±0.65	1.28
16. I am looking forward to a new life after I die.	2.66±0.76	2.36±0.67	2.01*
17. I am not worried about ever being helpless.	2.79±0.72	2.45±0.62	2.46*
18. I am not troubled by the thought that my body will decompose in the grave.	2.77±0.63	2.74±0.68	0.16
19. The feeling that I will be missing out on so much after I die disturbs me.	2.81±0.71	2.43±0.65	2.72**
20. I am worried about what happens to us after we die.	2.64±0.74	2.30±0.55	2.55*
21. I am not at all concerned with being in control of things.	3.00±0.47	3.04±0.51	-0.42
22. The total isolation of death is frightening to me.	2.81±0.58	2.53±0.65	2.17*
23. I am not particularly afraid of getting cancer.	3.23±0.56	3.21±0.69	0.16
24. I will leave careful instructions about how things should be done after I am gone.	3.00±1.08	2.83±0.56	0.96
25. What happens to my body after I die does not bother me.	2.83±0.52	2.89±0.56	-0.57
Total	2.80±0.43	2.55±0.28	3.37**

\* P<.05, \*\* P<.01, \*\*\* P<.001

<Table 3> The difference of death orient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7

	variables	N	M±SD	F-value
religion	protestant	9	2.76±0.57	0.21
	catholic	5	2.72±0.33	
	buddhism	17	2.87±0.37	
	none	16	2.79±0.46	
the existence of religion	yes	31	2.81±0.57	0.05
	no	16	2.79±0.46	
the experience of a death in recently(from 6 months ago to now)	yes	24	2.83±0.36	0.15
	no	23	2.79±0.50	

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와 같이 종교 유형, 종교 유, 무 그리고 최근에 접한 죽음 여부에 따라 죽음의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에서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에 평균점수는 2.80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이것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Park(1991)의 연구에서 자원봉사자 죽음의식의 평균 점수가 2.06이었고, Park(2001)의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교육 비 이수자 죽음의식의 평균점수가 2.17로서 중간 수준의 죽음의식을 나타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간호 대학생들 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의식 평균점수가 낮은 것은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죽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서 이미 죽음을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으로 사려된다. 또한 문항별 평균점수가 높게 반응한 문항들은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다' 등으로 간호 대학생들은 죽음과 관련된 질병이나 치료과정에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won(1980)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연상단어 중 '병'이 의·간호계 종사자들과 간호학과, 의학과 학생들의 죽음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병'으로 간접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결과와 본 연구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평균점수가 낮은 반응을 보인 문항들은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 "관을 보면 불안하다" 내용으로 내세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낮게 반응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 대학생들이 내세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가 낮은 현상은 Immiya, Choi 와 Han(2001)의 한국인의 내세관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내세관 유형중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인 불분명형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대학생들이 내세에 대한 무관심과 잘 알지 못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려된다.

간호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후에 따른 죽음의식의 변화 비교에서는 강좌를 실시하기 전 보다 후에 죽음의식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01)의 연구에서 호스피스 교육이수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 교육 비 이수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 정도에서 교육이수자가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문항별 '호스피스 간호' 강좌 실시 전·후 죽음의식에 유의한 감소를 보인 항목 14 항목 중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대한 문항인 '죽은 후에 다시 생각 할 수 없다는 당황감', '관을 보면 불안감', '죽은 후에 내일을 할 수 없다는 당황감', '죽으면 끔찍할 수 없다는 사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죽은 후에 아무것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것' '죽음으로써 모든 것과 완전히 격리된다는 당황함' '죽음 후에 올 많은 것을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림' 그리고 '죽을 때 아픔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간호 대학생들 죽음에 대하여 비교적 초연한 의식을 갖도록 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유롭고 자유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세관에 대한 항목인 '내세에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한 괴로움',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의 괴로움', '죽은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 항목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여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간호 대학생들이 내세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으며 내세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의식 정도, 종교 유형, 종교 유무 그리고 최근에 접한 죽음 여부에 따라 죽음의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별 죽음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Park(1991), Park(2001)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으나, Thorson & Powell(1990)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Gil(1993)의 연구에서 죽음에 접할 기회가 많았던 여성이 죽음에 대한 논의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죽음과 접할 기회가 적었던 남성이 덜 부정적이었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라는 과의 특성상 입학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사함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비슷한 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모든 인간은 삶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데 계획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자각할 때 두려움과 더불어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죽어 가는 사람일지라도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 희망과 용기야말로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수용하고 마지막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죽음의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Lee, 1998).

그러므로 임종환자들을 돌보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간호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최해자(1975)의 간호 대학생 및 간호사들의 죽음의 공포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교육연한이 증가해도 죽음의 공포는 감소하지 않았고 임상경험이 증가해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볼 때,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죽음과 관련된 교과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이에 미래의 호스피스 간호를 담당할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에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긍정적 효과를 미쳐 간호교육에 있어 호스피스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Thorson & Powell(1988)이 개발한 죽음의식 도구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후 죽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죽음의식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조사 시점 이전에 어떤 호스피스 및 죽음과 관련된 강좌를 이수한 적이 없는 '호스피스 간호'를 수강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3월 2일 '호스피스 간호' 강좌를 실시하기전과 강좌가 끝난 2001년 6월 21일에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7.0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paired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은 4점 척도의 기준에서 평균점수는 2.80으로 중간 수준의 죽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호대학생들의 '호스피스간호' 강좌 전·후에 따른 죽음의식 변화에서 죽음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01$ ), '호스피스 간호' 강좌 후의 죽음의식 평균점수는 2.55로 강좌 전의 죽음의식 평균점수 2.80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별 '호스피스 간호' 강좌 전·후 죽음의식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인 항목은 총 25 문항에서 14개 문항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의식 정도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종교 유형, 종교 유무 그리고 최근에 접한 죽음 여부에 따라 죽음의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호스피스 간호' 강좌가 간호 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초연한 의식을 가지고 내세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 하지 않으며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유롭고 자유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 있어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죽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호스피스 간호란 죽음을 준비시키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므로 '호스피스 간호' 강좌에 죽음에 대한 이해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죽음의식을 지속시키고 바람직한 간호행동으로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

Adams, A. B. (1985). Dilemmas of Hospice,

- A Critical Look at Its Problems. ACS Professional Education, *American Cancer Society*, No.3441, 9.
- Boyar, J. I. (1964). *The construction and par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the fear of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 Choi, H. J. (1975). A study on the fear of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J Korean Acad Nurs*, 5(10), 41-47.
- Dongguk University (2001). *Courses of study*. Seoul: Dongguk University.
- Immiya, Y., Choi, I. H., & Han, S. Y. (200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View of the after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77-96.
- Jo, Y. H. (1990). *Hospice*. Seoul : Hyeon Publishing Company.
- Jung, D. O. (1980). *Death on the philosophy*. Seoul : Samok.
- Gil, S. Y. (1993). *A study on attitudes towards death*.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Y. J., & Park, J. S. (1984). Introduction of hospice care. *The Korean Nursing*, 23(3), 51-56.E.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 The MacMillan Co.
- Kübler-Ross, E. (1970). Five stage a dying patient goes through. *Medical Economics*, sept.
- Kwon, H. J. (1980).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among health care personnels. *J Korean Acad Nurs*, 10(2), 13-20.
- Lee, E. J. (1998). *A study of spot-survey towards the attitude of hospi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of Korea, Leegsan.
- Lewandowski, W., & Jones, S. L. (1988). The family with cancer. *Nursing*, 11(6).
- Michael, A. S. (1979). *Dying : Facing the Facts-Social and Phychological Aspects of Dying*. N. Y. Hemispre Publishing Corporation, 127.
- Park, S. C. (1992).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S. H. ( 2001). *A comparative study about consciousness of death in hospice volunteer-an object of volunteers between the trained and non traine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aegu.
- Park, S. J., & Choi, S. H. (1996). A study on the degrees of death orientation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3(2), 285-297.
- Templer, D.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5-177.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s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 Thorson, J. A., & Powell F. C. (1990). Meanings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4), 379-387.
- Yoo, K. J. (1974). A study on the attitude of death among nurses. *J Korean Acad Nurs*, 4(1), 162-178.
- Yoon, H. O. (1985). The attitude of death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yungpook University of Korea, Daegoo.

## Abstract

### A Study on Change in Death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 Nurses -comparison of pre and post hospice care class-

Baek, Seol-Hyang · Lee, Mi-Aie  
Kim, In-Ho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ath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 nurse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death orientation of a class on 'hospice care'. this was done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ath orientation before and after the class.

**Method:** The instrument used in this investigation was the death orientation scale developed by Thorson and Powell (1988).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47 college student nurses in a 'hospice care' clas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etween March 2, 2001, when the class began, and

June 21, 2001 when the class ended. The collected data were examined using arithmetic mean, percentage, t-test, ANOVA.

**Resul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death orientation score of the subjects before the class was 2.80.
2. There w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ath orientation scores before and after the class ( $p < 0.001$ ). Before the class, 'hospice care', the students had an average score of 2.80. Their average score decreased to 2.55 after the class. Of 25 death orientation items on the scale, 14 item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class as compared to before the class.
3. According to personal attributes (religion, the existence of religion, the experience of a death in recently) of subjects,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death orientation ( $p > 0.05$ ).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a class on hospice care was effective in changing the death orientation of student nurses.

Key words : Hospice care, Death orientation

---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